

김수경과 중국 조선어학

최희수 (崔羲秀)

金壽卿と中国の朝鮮語学

日本語要旨

本稿は、金壽卿先生の研究業績が中国朝鮮語の発展に与えた影響を明らかにするためのものである。論文は中朝文化交流の概況、金壽卿と朝鮮の朝鮮語学、金壽卿と中国の朝鮮語学の三章で構成されている。第1章の中朝文化交流の概況では、〔1945年の〕8.15から1992年の韓中両国の修好以前の得的の歴史条件において、中国の朝鮮語が朝鮮の朝鮮語の影響を受けてきた歴史を回顧した。第2章の金壽卿と朝鮮の朝鮮語学では、金壽卿先生が40年代から70年代までのあいだに朝鮮の朝鮮語研究において上げた主な成果を振り返り、金壽卿先生は朝鮮の現代朝鮮語研究における新たな道を開拓し、朝鮮語研究のメインストリームをリードし、朝鮮の言語学の発展、ひいては朝鮮民族の言語学の発展に不朽の貢献をした傑出した学者であ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第3章の金壽卿と中国の朝鮮語学では、金壽卿先生が中国の朝鮮語文法教育と研究に及ぼした影響について叙述した。ここでは1) 金壽卿と中学校の朝鮮語文法教育、2) 金壽卿と大学の朝鮮語文法教育、3) 金壽卿と朝鮮語文法研究、4) 金壽卿と一般言語理論の研究に分け、金壽卿先生の研究業績が20世紀の50年代から70年代に至るまで中国の朝鮮語文法教育と研究発展に莫大な影響を及ぼ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最後に、金壽卿先生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朝鮮語学の発展、中国朝鮮語学の発展、さらには朝鮮民族語学の発展に卓越した貢献をされた傑出した言語学者であることを指摘し、金壽卿先生の研究業績に対する研究が真摯に行われることを願った。

김수경 선생은 일찍 1950년대부터 중국 조선민족 사회에 널리 알려졌고 중국 조선어학의 발전에 매우 큰 기여를 하신 걸출한 학자입니다. 선생께서는 1956년 11월 25일 북경을 거쳐 연변대학에 오시어 ‘주시경선생의 학설’, ‘조선의 문자개혁’ 및 ‘조선어 우수성’ 등의 특강을 하시었다.¹⁾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1988년 8월 중국 북경대학 조선문화연구소와 일본 오사카경제법과대학 아시아연구소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개최한 제2회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에 참가하시었다. 필자는 이 회의에서 김수경 선생을 처음 만나 뵈었다. 그 후 1991년 조선 평양 인민대학습당에서 김수경 선생을 만나 뵈고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늦게나마 이러한 모임을 갖고 김수경 선생의 빛나는 연구 업적을 기리는 모임을

갖게 된 것이 다행이라 느껴진다. 아울러 이번 모임을 계기로 선생의 우리말 연구에서 거둔 업적과 이론들이 더 깊이 있게 연구되기를 바란다. 이는 우리 민족 언어연구 역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거족적 과업이다.

1 중조 문화교류 개황

김수경 선생의 조선어문법 이론이 중국 조선민족 사회와 조선어 연구에 미친 영향을 알려면 먼저 중조 두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가 어떠했는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일제의 식민 통치 시기 많은 한인(韓人)들이 중국에 거주하였다. 그들의 대다수가 항일 투사와 가난한 농민들이었다. 항일 투사 대오에는 정치인, 군인, 지식인, 예술인 등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다 망라되어 있었다. 중국에 거주한 한인들은 20세기 초부터 학교를 세우고 반일 민족문화 교육을 하였다. 그 가운데에서 1908년에 金躍淵이 세운 明東학교는 반일민족교육의 요람이었다. 하여 1920년 일본 침략자들이 연변에 들어와 야만적인 대학살을 감행할 때 명동학교를 불살라버리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굴함 없이 1923년에 새 교사를 짓고 민족인재를 양성했다. 그 시기 고국의 우수한 지식인들이 중국에 와 우리 민족문화 교육사업에 이바지하였다. 명동학교에 와 교편을 잡은 분들 가운데에는 역사학자 黃義敦, 법학자 金撤, 언어학자 張志暎 등이 있었으며 이 학교에서는 유명한 시인 尹東柱, 예술인 羅雲奎를 비롯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길러 냈다.

중국의 한인학교는 동북지구의 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 세 개 성에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한인학교들에서는 매우 많은 항일 투사들을 배양해 냈을 뿐만 아니라 해방 후 한국, 조선, 중국 세 나라에서 활약한 출중한 정치가, 군사가, 학자, 예술가들을 배양하였다. 이 시기 한인학교의 민족어 교육의 내용, 규범 등은 고국의 것을 그대로 썼기에 고국과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8·15해방 이후 중국에 거주하던 한인들의 1/3이 고국으로 돌아가고 2/3가 중국에 남아 중국 국민이 되었다(1949년 중국 조선민족 인구는 120만 명이었다.). 고국으로 돌아간 한인들 가운데에는 재능이 있는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에서의 우리 민족 교육이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와 1949년에는 소학교 1500개소에 학생 18만 명이었고, 중학교 70개소에 학생 16700명이었다. 1949년 4월 연변대학이 성립되어 제1기생 451명이 입학하였다. 이리하여 중국 조선민족은 중국에서 자기의 민족 대학까지 갖고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이 되었다. 중국 조선민족 문화의 발전을 위해 1945년에 조선문판 신문 “韓民日報”(그해 11월에 “延邊民報”로, 이듬해 5월에 “吉東日報”로, 9월에 “人

民日報”로, 1948년 4월에 “延邊日報”로 개칭됨)가 창간되고, 1947년 3월 연변교육출판사가 성립되고, 7월 東北朝鮮人民書店이 연길에 세워지고, 1948년 10월 문예잡지 “延邊文化”가 창간되고, 11월에 방송국이 성립되어 연변이 중국 조선민족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²⁾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국에 의거하여 오던 중국 조선민족의 문화교육은 8·15이후 조선 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중국과 한국 사이의 문화교류는 단절되고 중국과 조선 사이에서만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여 해방 초기 중국 조선민족 문화교육은 조선에 의거하게 되었다. 8·15이후부터 1950년대 후기까지 조선에서 출판된 많은 책들이 중국에서 재판되었다. 그 가운데의 대부분은 원본대로 재판하고 일부분은 수정하여 출판했다. 특히 중국의 중소학교와 대학의 조선어문법 교육이 조선에 의거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출판한 중소학교 조선어 교과서 이름의 변천 역사가 중국 조선민족 언어교육의 역사가 어떠했는가를 말해준다. 해방 전부터 1952년까지 사이에는 “한글”, 1953년-1958년에는 “조선어”, 1959-1962년에는 “조선족어문”, 1963년부터 현재까지 “조선어문”이다. 중국 중소학교 우리말 교과서가 ‘한글’로 불릴 때는 해방 전부터 받아오던 반도의 영향이 지속되던 시기이고 ‘조선어’로 불릴 때는 조선의 영향을 받은 시기이다. 중국에서 1957년부터 1959년 사이에 진행된 반우파 투쟁과 지방민족주의에 대한 투쟁을 계기로 중소학교 우리말 교과서에 조선의 작품을 넣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서 편찬한 중국어 교과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쓰게 하였으며 이름도 “조선족어문”으로 되었다. 1962년 반우파 투쟁의 좌적 영향을 시정하면서 “조선어문”으로 고치었다.

이 시기 대학의 조선어학과에서도 좌적 사상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교수와 연구에서는 의연히 조선의 문법이론과 연구 성과들을 도입하였다. 또한 연변대학 조선어학과 학생들의 참고자료는 거의 다 조선의 자료들이었고, 대학에서 편찬한 문법교과서도 조선에서 나온 문법서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사회적으로 중국 조선어가 직면한 주요한 문제는 규범화이다. 서사규범은 기본상 조선의 것을 따라 썼으나 어휘규범은 상황이 달랐다. 중국어가 무단히 중국 조선어에 영향을 주면서 신문사, 출판사, 방송국 등의 문화 단위들에서 이러한 단어들의 번역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1957년 반우파 투쟁 이후 이른바 ‘漢語大躍進’의 좌적 사상의 영향으로 대량의 중국어 단어를 차용해 쓰면서 어휘 사용이 혼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62년에 연변언어문자연구회가 성립되고 이듬해 3월 ‘연변조선족자치주 어문공작 집행조례(초안)’, ‘조선어명사술어 제정 통일 시행방안(초안)’, ‘조선어 표기법 방안(초안)’ 등이 토론되었다. 1963년 6월에는 중국 정부

의 총리 주은래가 중국 조선어가 조선을 따르라는 지시를 내리었다. 1964년 2월 ‘조선어 명사, 술어 규범방안(초안)’이 작성되었다. 이 시기 조선어규범도 조선의 것을 따랐는데 1965년 5월 연변대학 어문계에서는 조선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토론용으로 공포한 ‘조선말 띄어쓰기(초안)’을 재판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어 참고하게 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1969년 북경 모택동사상 학습반에서 ‘조선말띄어쓰기(초안)’을 채택하여 조선 평양을 따라 배우라는 주은래 총리의 지시를 반대하였다. 그 뒤 연변조선족자치주 모주석저작 번역출판관공실 언어연구소에서 1973년 1월에 ‘조선어띄어쓰기(초안)’을 집필했다. 그리고 1974년 7월에 ‘조선어표준발음법(초안)’을, 9월에 ‘조선말철자법(초안)’을 출판했다.

1977년 5월 동북3성조선어문사업협의소조가 설립되었다. 그해 8월 제1차 회의에서 ‘조선말표준발음법’, ‘조선말맞춤법’, ‘조선말띄어쓰기’, ‘문장부호법’ 등 조선말규범을 채택하고 이를 1977년 11월 연변인민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이로부터 중국 조선어는 자체의 규범을 쓰게 되었다. 이듬해인 1978년부터는 조선말어휘규범이 진행되었는데 문화대혁명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어를 폐지하고 기존의 어휘들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1978년 12월 5일에 채택된 ‘조선말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에서는 “조선말 명사, 술어는 평양말을 기준으로 삼아 따라 배우라는 주총리의 지시를 좇아 언어의 민족화와 언어의 대중성, 과학성의 요구에 맞게 규범함으로써 조국의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조국의 네 가지 현대화를 위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지금 중국에서 진행되는 우리말 교육은 두 가지로 진행되는 모순 상태에 처해 있다. 즉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선어 교육에서는 한국의 규범과 이론을 따르고, 중국 조선민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 조선어문 교육에서는 중국에서 제정한 조선어규범을 따르고 있어 사실상 중국 경내에서는 중국 조선어규범과 한국의 규범이 병존해 있는 실정이다.

중국에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사이에 한국에서 나온 자료들은 전혀 볼 수 없었고 조선의 문법서들이 중국의 조선어 교육과 연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부터 한국의 자료들을 접촉할 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1980년대 초기에는 북경에 있는 국가 도서관에 가야 얼마 안 되는 한국의 자료들을 볼 수 있었다.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 사이의 문화교류가 깊어지면서 한국의 자료들이 많이 들어와 한국의 문법이론이 중국의 조선어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 지금 중국 도서시장에서 팔리는 우리글 도서에는 중국, 한국, 조선 세 나라에서 출판한 도서들이 다 팔리고 있다. 이는 중국 조선민족이 세 나라의

문법규범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로 하여 생기는 혼란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2 김수경과 조선의 조선어학

김수경 선생은 조선에서 조선어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언어학자이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2.1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개정의 이론적 기초를 닦으시었다.

조선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의 문제점이 제일 처음 제기된 것이 1946년 8월이다. 이 때 공산당과 신민당이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되면서 당의 명칭을 ‘로동당’이라 하느냐 아니면 ‘노동당’이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신중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는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을 준수하느냐 아니 하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거쳐 ‘로동당’으로 한다고 선포하였다. ‘로동당’으로의 표기는 그 시기에 조선에서도 준수해 오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모순되므로 ‘로동당’으로의 표기의 정당성을 이론적으로 밝혀주어야 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이 임무를 수행한 첫 논문이 바로 김수경 선생의 논문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통일안’ 중에서 개정할 몇 가지, 그 하나로서 한자음 표기에 있어서 두음 ㄴ 및 ㄹ에 대하여”이다. 이 논문은 “로동신문” 1947년 6월 6, 7, 8, 10일 호에 실리었다. 논문에서는 통일안의 두음법칙의 제한성에 대해 아래의 네 가지로 지적하였다. 첫째는 표음주의 경향, 둘째는 비체계성, 셋째는 다른 외래음 표기와와의 모순성, 넷째는 언어음 발전에 예견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이 논문이 조선노동당 기관지에 발표된 것은 조선 로동당 언어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논문으로 통일안 개정의 효시로 평가 받고 있다.³⁾

그런데 1948년 8월 31일 연변 大眾書院에서 출판한 박상준의 “조선어문법”의 “알림”에 “이 책은 三十七年度 中等學校 敎員研究會 한글科에서 東北 各 中學校 한글科 보충교재로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채택인 박상준 선생의 지음, 초급중학교 조선어 문법」을 인행하기로 토론되어 이것을 원본대로 인쇄하였으나 성음편 제사장 전음 제이절 자음의 전음 다, ㄹ의 전음에 관한 것은 一九四七年 五月 三〇日에 發表된 「漢字音 表記에 있어서 頭音 ㄴ 及 ㄹ에 對하여」의 論文(本院印刊의 한글 맞춤법의 끝에 轉載하여 있음)을 參照하여 주심을 바라며 또 그러한 음은 전부 본음대로 改正하였아오니 照亮하시오. 一九四八年八月三十一日 大眾書院”이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서 언급한 논문 「漢字音 表記에 있어서 頭音 ㄴ 及 ㄹ에 對하여」의 저자가 누구인가를 밝히지 않았으나 김수경 선생의 논문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래의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

째는 김수경 선생의 논문이 1947년 5월 30일에 발표되었고 발표 시의 논문 제목과 “로동신문”에 실린 제목이 꼭 같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이 논문이 발표 직후 중국에도 널리 알려졌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중국 조선어에서도 1948년부터 조선의 원칙대로 어두에서 ㄴ, ㄹ을 표기하였다는 사실이다. 대중서원에서 재판한 박상준의 문법은 1947년 간행본으로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을 준수한 것을 재판하면서 개정한 것이다.

그 이후 몇 년간의 연구를 거쳐 1954년에 ‘조선어철자법’을 제정하고 조선어 표준어도 통일안의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를 “표준어는 조선인민 사이에 사용되는 공통성이 가장 많은 현대어 가운데에서 이를 정한다”로 고치었다.

2.2 조선의 규범문법을 개척하고 발전시킨 주동자였다.

8.15 해방 이후부터 1979년까지 조선에서 출판된 대표적인 문법서들을 보면 아래와 같다.

- 1947년 “조선어문법” 박상준, 1948년 재판
- 1949년 “조선어문법” 조선어문연구회
- 1960년 “조선어문법(1)”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 1961년 “현대조선어(1)” 김수경, 김금석, 김영환
- 1962년 “현대조선어(2)” 김수경, 김백련
- “현대조선어(3)” 김수경, 송서룡
- 1963년 “조선어문법(2)”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 1964년 “조선어문법” 김수경, 럽종률, 김백련, 송서룡, 김영환
- 1970년 “조선문화어(1,2)”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강좌
- 1972년 “문화어문법규범(초고)” 조선문화어문법규범편찬위원회
- 1973년 “조선어” 권승모
- 1976년 “조선문화어문법규범” 조선문화어문법규범편찬위원회
- 1979년 “조선문화어문법” 사회과학원언어학연구소

이상의 문법서들 가운데에서 규범문법으로 평가되고 있는 문법서는 1949년 “조선어문법”, 1960년 “조선어문법(1)”, 1976년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이다.

그렇다면 이 세 문법서의 저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1949년 “조선어문법”의 저자가 ‘조선어문연구회’로 되어 있다. 조선어문연구회는 1948

년 10월 田蒙秀를 위원장으로 하고 李克魯, 許翼, 明月峰, 金龍成, 申龜鉉, 洪起文, 金炳濟, 朴宗軾, 朴俊泳, 朴相竣, 金壽卿 등 12명의 학자들로 구성된 文法編修分科委員會를 구성하였다. 1년 뒤인 1949년 9월에 문법서의 초고가 완성되고 10월에 분과 위원회에서 토론된 다음 12월 30일 출판되었다. 그런데 이 책은 김수경 선생이 담당집필한 책이다.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에서는 “이 시기에 나온 ‘조선어문법’(1949)은 김수경이 담당집필한 문법책으로서 해방 후 새롭게 받아들인 일반언어학 이론에 기초하여 조선어의 문법구조 현상을 분석 고찰하여 체계화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365페이지), “인민들과 언어생활에 진정으로 보탬을 주는 규범문법을 만들어낼 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관철하는 투쟁 속에서 나온 문법책이 바로 “조선어문법”(1949)이다. “조선어문법”(1949)은 당시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 강좌장 김수경이 주동이 되어 집필하였다. 이것은 지난 시기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문법연구 성과들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 이룩된 연구 성과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다.”(403페이지)고 하였다. 여기에서 이르는 수령님의 교시란 1948년 1월 14일 김일성이 “조선어문연구회 회장과 한 담화”를 가리킨다. 이 문법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비과학적인 “6자모”를 넣은 것이다.

1960년 과학원 출판사에서 출판한 “조선어문법(1)”의 저자는 과학원언어문학 연구소로 되어 있다. 그러나 “주체의 조선어연구 50년사”에서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이 시기에 나온 단행본인 ‘조선어문법(1)’(1960년)은 김수경, 리근영이 담당집필한 것인데 해방 후의 연구 성과들을 종합하고 서술한 규범문법으로서 풍부한 언어자료에 토대하여 조선어의 형태론적 현상들을 깊이 있게 분석 고찰하여 체계화한 것으로 하여 당시 문법교육과 언어생활 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특히 이 책은 과거 조선어 연구가들이 거둔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는 한편 선진언어 이론을 도입하면서 언어학 부문의 연구가들의 광범한 의견을 참작하여 체계를 세운 것으로 하여 과거의 문법서들에 비해 한층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선어문법(1)”과 같은 계열의 “조선어문법(2)” 역시 저자가 과학원언어문학 연구소로 되어 있으나 집필자는 정렬모, 송서룡인 것으로 밝혀지었다.⁴⁾ “조선어문법(2)”는 문장론이다. 그런데 이 시기의 문법서 가운데에서 김수경, 송서룡이 쓴 “현대조선어(3)”(고등교육출판사 1962)가 문장론의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⁵⁾ 상술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김수경 선생이 1960년대 조선어규범문법 편집의 주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1976년 “조선문화어문법규범”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의해 편집된 규범문법이다. 이 문법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 강좌가 주동이 되어 사회과학 연구소와 여러 사범대학

의 학자들을 망라한 많은 유능한 학자들이 집체적 토의를 거쳐 집필하였다.⁶⁾ 그런데 이 책은 그 이전 시기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편집하였는바 김수경 선생의 이론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어음론, 형태론, 문장론으로 서술되었다. 형태론의 품사 설정에서는 “앞 시기의 ‘조선어문법(1)’(1960)과 같은 체계”라고 하였고,⁷⁾ 문장론의 문장의 표식은 “현대조선어(3)”의 진술성, “조선어문법(2)”의 술어성과 같고, 단어결합은 “현대조선어(3)”(1962)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자말로 되어 있던 학술용어를 다듬은 우리말로 바꾸었다는 측면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⁸⁾ 이는 1976년도 규범문법에도 김수경 선생의 문법이론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2.3 중학교 학교문법의 기초를 닦으시었다

“주체의 조선어연구50년사”에서 조선에서 출판된 중소학교 문법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이 책을 통해서도 조선에서의 중소학교 조선어문법 편찬이 어떠한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 재판한 조선의 문법교과서들을 통해 조선에서 1940년대와 50년대에 중소학교 학교문법서들을 출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출판한 조선의 중소학교 문법교과서는 아래와 같다.

(1) 박상준 “조선어문법”(1947)

이미 앞에서 인용한 재판자의 “알림”에서 밝힌 바와 같이 박상준의 문법을 「북조선 인민 위원회의 채택인 박상준 선생의 지음, 초급중학교 조선어 문법」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초급중학교 조선어 문법”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보아 박상준 문법이 조선에서 초급중학교 문법으로 쓰이면서 사회에서도 쓰게 하였다고 느껴진다. 이는 일찍 1940년대 말에 조선에서 학교문법 출판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정렬모, 리근영, 안문구의 소학교용 “국어문법교과서”

1950년대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재판한 조선의 소학교 문법교과서를 통하여 조선의 정렬모, 리근영, 안문구 등 학자들이 6·25전쟁이 끝난 다음, 1950년대 중기에 조선의 소학교용 문법교과서들을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ㄱ. 정렬모, 리근영 “조선어문법”(초급소학교 교과서 제4학년용)(1956)

이 문법책은 연변교육출판사에서 1956년 3월 제1판으로 재판한 문법책으로 이 책의 저자가 정렬모, 리근영으로 되어 있다. 이는 조선에서 출판한 책을 중국에서 재판하였음이

분명하나 조선의 어느 때의 어느 판본을 재판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ㄴ. 정렬모, 리근영 “조선어문법”(고급소학교과서 제1, 2학년용)(1956)

이 문법책은 연변교육출판사에서 1956년 8월 제1판으로 재판한 문법책으로 저자가 정렬모, 리근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책에는 원출판자가 조선 교육도서출판사로 되어 있고, 1956년 5월에 제3판을 출판하였음이 밝혀져 있다.

ㄷ. 정렬모, 안문구 “국어문법교과서”(인민학교 제3학년용)

이 문법책은 1957년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수정 출판하면서 써놓은 ‘출판자의 말’에서 조선의 3학년용 문법서임이 밝혀지었다. ‘출판자의 말’에는 “이 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 학교 제3학년용 국어 문법 교과서(정렬모, 안문구 저작, 교육 도서 출판사 1956년도 제2판)로서 편찬된 것을 인민학교 국어 문법 참고 자료와 우리 학교의 실제에 적합되도록 수정 개편한 것이다. …… 1957년 1월 연변 교육 출판사”라고 하였다. 이 문법책을 연변에서 3권으로 개편하였는데 제2권과 제3권이 57년 3월에 초판으로 출판되고 제1권으로 밝혀진 책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연변교육출판사에서 개편한 “조선어 문법”(소학교 교과서 제1책 1956년 2월 제1판)이 발견된다. 이것이 정렬모, 안문구의 문법책을 세 권으로 개편하면서 나눈 제1권으로 추정된다. 즉 1956년 2월에 개편할 때에 제1책이라 하고 1957년에는 제2권, 제3권이라 하지 않았겠나 싶다.

상술한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아래의 몇 가지를 귀납할 수 있다.

첫째, 조선에서 6·25전쟁이 끝난 다음 소학교용 문법교과서를 출판하였다. 이 교과서가 1955년(1954년?)부터 출판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둘째, 소학교용 문법교과서의 저자는 정렬모, 리근영, 안문구 세 분이다. 정렬모, 안문구가 소학교 3학년용 문법서를 집필하고, 정렬모, 리근영이 4학년, 5학년, 6학년용을 집필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선에서 1950년대 중기에 소학교 3학년부터 문법교과서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조선에서의 책 이름은 “국어문법”으로 되었으나 중국에서 재판하면서 “조선어 문법”으로 고치었을 것이다.

(3) 김수경 중학교용 “조선어 문법”(1954년 11월)

이 문법책에 대해 한국에서 와전되고 있다. 김민수 교수님의 “現代語文政策論” 920쪽에서는 “이들의 연구는 前期에 안문구의 「조선어 문법」(초급중학교용 1954), 홍기문의 「향가」(1956), 「리두」(1957), 김병제의 「방언학」 상(1959) ……”라고 하여 조선에서 1954년에 출판된 초급 중학교용 “조선어 문법”의 저자를 안문구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안문구가 아니라 김수경이고, 안문구는 이 책의 어학 편수로 되어 있다.

이 책을 조선 교육도서 출판사에서 1954년 11월에 초판으로 발행하였다. 중국에서 1955년 3월에 편집하여 5월에 재판하였으니 책이 나온 지 반년 만에 중국에서 재판한 것이다. 이 책의 재판자인 연변교육출판사 ‘번인자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아래와 같다.

“이 책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초급 중학교용 ‘조선어 문법’ 교과서로 김수경 선생이 저작한 것이다.

본 사에서는 조선족 초급 중학교에 적절한 조선어 문법 교과서가 없는 정황하에서, 그리고 우리 조선족 대중에게도 역시 이런 문법 서적이 결핍된 정황하에서 저자의 동의를 거쳐 이 책을 번인 출판한다.

원서는 초중 1, 2 학년용과 초중 3 학년용 두 책으로 나뉘어졌다. 그러나 우리들은 발행상의 편의를 위하여 이를 합본하여 발행한다.

끝으로 원서에 있는 철자법과 자모 명칭에는 저작된 시간적 차이로 하여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1954년 출판 ‘조선어 철자법’과 일부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에 저자의 동의를 거쳐 수정하였다는 것을 말하여 둔다. 우리의 수정으로 하여 발생된 오유에 대하여 저자 및 독자들은 지적하여 주기 바란다.

1955.3.20. 연변 교육 출판사”

여기에서의 ‘번인’이란 중국어 ‘翻印’을 음역한 말이니 우리말의 ‘재판’이나 ‘복각’의 뜻이다. 위의 ‘번인자의 말’에서 보아낼 수 있듯이 이 책의 철자법이 1954년 9월 9일에 공포된 ‘조선어철자법’과 다른 것들이 있었으니 이 책의 편집이 새로운 철자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때의 책 출판이 지금과는 달리 활자를 주어서 배판해야 하니 적어도 2 개월이 걸리게 됨을 감안하면 그해 9월 9일 이전에 이 책이 인쇄에 교부되었을 것이다.

이 책이 중국에서 모두 몇 번 인쇄되었는지를 알 수 없으나 1956년 10월 제4차 인쇄까지 포함 53,400부가 인쇄되었다. 1955년 판본의 표제는 “저자 김 수경, 조선어 문법, 연변 교육 출판사”로 되어 있으나 1956년 10월 판본의 표제는 “초급 중학 교과서, 조선어문법 (대용본), 연변교육출판사, 1956”로 되어 있어 표제에 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제1페이지의 ‘번인자의 말’은 1955년 판본의 원문 그대로 적혀 있어 책 저자가 김수경임이 밝혀져 있다.

50년대 이후 조선에서의 중소학교 문법교과서 출판의 상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50년대에 정렬모 선생이 조선의 소학교 문법교과서 편집을 담당하시고, 김수경 선생이 초급중학교 문법교과서 편집을 담당하셨음은 의심할 바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니 조선에서 김수경 선생과 정렬모 선생 두 분이 50년대 학교문법의 기초를 닦으신 것이다.

2.4 여타의 연구 업적

(1) 어휘론 연구

김수경 선생의 “현대조선어(1)”에서 어휘론을 다루었는데 이 저작이 이 시기 어휘의미론의 기초개념을 정립하고 종합체계화하여 이론화한 최초의 저술로 평가되고 있다.⁹⁾

(2) 문체론 연구

김수경 선생이 1964년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조선어문체론”(고등교육도서출판사)을 발표하시었다. 이 책은 조선에서의 문체론의 성립으로 평가받고 있다.¹⁰⁾

이 외에도 김수경 선생은 「룡비어천가에서 보이는 삼입자모의 본질」(“조선어연구” 1권2호 1949) 등을 비롯한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하시었고 새로운 문법이론의 도입에도 많은 기여를 하시었다.

김수경 선생이 쌓으신 업적들을 돌이켜보면 선생께서는 조선의 현대조선어 연구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었고 조선어 연구의 주류를 이끄시면서 조선의 언어학 발전, 더 나아가 우리민족 언어학의 발전에 불후의 공헌을 하신 걸출한 학자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김수경과 중국의 조선어학

김수경 선생은 중국 조선어학의 발전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신 학자이시다.

3.1 김수경과 중학교 조선어문법 교육

1950년대에 중국 중소학교 조선어 교육은 조선의 영향을 받아 중소학교 학생용 문법교과서를 발행하였다. 소학교에서의 문법교과서는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렬모, 리근영, 안문구의 소학교용 문법교과서를 그대로 쓰거나 개편하여 썼다. 중국에서 정렬모, 안문구가 쓴 3학년용을 개편하였는데 제1책은 김익영이 개편하고, 제2권은 이정룡이 개편하고, 제3권은 김두천이 개편하였다.

중학교에서는 1948년부터 박상준의 “조선어문법”을 재판하여 교과서로 썼다. 박상준 문법이 몇 번 재판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51년에도 재판되었다. 그 후 1955년 김수경

의 “조선어 문법”이 중학교 조선어문법 교과서로 채택되어 50년대 말까지 중학교 조선어 문법 교과서로 쓰이었다. 이는 50년대 중기부터 김수경 문법이 중국 중학교 조선어문법 교수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말해준다. 필자도 이 시기 김수경 선생의 “조선어문법”으로 우리말 문법교육을 받았다. 1960년대부터 중학교 조선어 교육에서 문법을 학과목으로 따로 설정하지 않고 조선어학과에서 문법지식을 전수하였는데 기본체계는 김수경 선생의 문법체계였다. 그 뒤 1984년 연변교육출판사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김두천, 리규호, 박세암, 장영태 등이 편찬한 자체의 “중학생 조선어실용문법”을 편집 출판했다.

3.2 김수경과 대학교 조선어문법 교육

중국 조선족 중소학교에서 조선의 영향을 받은 것은 50년대이고 60년대부터는 조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조선어문법 교육은 사정이 달라 좌적 사상의 영향을 받기는 하였으나 중한 수교 이전까지 대학생들 조선어 공부의 주요한 참고서는 조선에서 출판된 자료들이었다.

1949년에 건립된 연변대학 조선어학과가 초창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학과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자료에 의하면 반우파 투쟁 이후 민족정풍 시기인 1958년에도 연변대학 사범학원 교무과에서 조선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학과용 “고대조선어” 교수안을 등사본으로 번인하였다. 50년대 초기 김수경 선생이 김일성 종합대학 조선어학과 강좌장으로 계셨음을 감안하면 김수경 선생이 연변대학 조선어학과의 건설과 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였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과의 자료를 연변대학에 보내려면 학과장의 비준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변대학 조선어학과 초창기에 김창길, 이호원 두 분이 조선어문법을 가르치시었는데 1949년 조선어문연구회에서 편찬한 “조선어문법”을 교재로 하였다.¹¹⁾ 이미 앞에서 밝히었듯이 1949년 조선어문연구회의 “조선어문법”은 김수경 선생이 담당집필한 책이다. 이 문법은 그 이전 시기의 연구 성과를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탐구가 이루어지었다. 이 책이 1956년 자체의 교재를 편집할 때까지 연변대학 조선어학과의 교재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에는 “조선어문법(1)”이 연변대학 조선어학과 학생들의 주요한 참고서로 되었다. 이 책의 형태론 역시 김수경과 리근영이 집필한 책이다. 이로부터 우리는 김수경 선생이 사실상 중국 대학교 조선어문법 교육의 기초를 닦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김수경 선생의 문법이론은 그 이후의 대학교 조선어문법 교육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3.3 김수경과 조선어문법 연구

20세기 중국 조선어 연구의 주력은 연변대학이었다. 1949년 연변대학 성립 이전 북경 대학에 조선어학과가 개설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연변대학이 세워지면서 연변대학 조선어학과가 중국 조선어 연구의 주력으로 되었다. 50년대 전반기에는 조선어문법 연구 인재의 양성시기로 별다른 연구 성과를 내오지 못하였다. 1956년 연변대학 조선어 강좌에서 학생용 교과서로 “조선어문법”을 편찬하였는데 이세룡이 어음론을, 최윤갑이 형태론을, 김학련이 문장론을 집필하였다. 등사본으로 나온 이 책은 당시 중국에서 배양한 조선어 연구 일꾼들이 처음으로 써낸 조선어문법 책이다. 이 책은 연변대학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북삼성 중학교와 조선어 일꾼들의 주요한 참고서가 되었다. 이 책의 집필에서는 1949년 조선어문법연구회의 “조선어문법”, 박상준의 “조선어문법”, 김수경의 “조선어문법”, 최헌배의 “우리말본”, 쏘련 홀로도비치의 “조선어문법” 등을 참고로 하였다.¹²⁾

1963년과 1964년에 연변대학에서 새로 “고대 조선문 강독”과 “현대조선어”를 내부교재로 편찬하여 인쇄하였는데 “현대조선어”는 활자본이고 “고대 조선문 강독”은 등사본이다. “고대 조선문 강독”(1963)은 최윤갑 교수가 편집하고, “현대조선어”는 새로 배양된 교원 방장춘과 김상원이 편집하였다. 방장춘이 “현대조선어(어음론)”(1964)과 “현대조선어(형태론)”(1,2)(1963)을, 김상원이 “현대조선어(문장론)”(1963)을 집필하였다. 연변대학에서 새로 편찬한 “현대조선어”는 1960년 조선 사회과학원에서 나온 “조선어문법(1)”과 1961-1962년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나온 “현대조선어”를 참고하였던 것만큼 이 두 문법서의 견해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책이 품사 설정에서는 “현대조선어(2)”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조선어문법(1)”의 견해를 따랐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조선 사회과학원 “조선어문법(1)”과 김일성종합대학 “현대조선어”가 모두 김수경 선생이 편찬한 문법서임을 감안하면 1960년대 중국의 조선어 연구 역시 김수경 선생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966년 3월 연변 역사언어연구소 언어연구실에서 “조선어 어휘론 기초”(연변교육출판사)를 출판하였다. 이 책의 기본이론 역시 김수경 선생이 집필한 “현대조선어(1)” 어휘론 부분의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 비록 문화대혁명의 영향을 받아 중국 조선어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지는 못하였으나 몇 부의 문법서가 공개 출판되었다. 70년대에 발표된 문법서로는 서영섭, 김기중의 “조선어문법(형태론)”(1972), 최윤갑의 “조선어어음론”(1973), 최윤갑의 “조선어문법(문장론)”(1974), 허동진, 위옥승의 “조선어실용문법”(1976) 등이 있다. 이러한 문법서들이 그 시기의 사회적 수요로부터 통속성과 대중성이 강조되었고 응용에 주의를 돌리었

다. 그러나 수십 년간 영향 받아온 조선의 문법이론, 체계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조선의 이론을 답습하였다. 특히 형태론에서는 김수경의 “현대조선어(2)”의 영향을 받아 품사 설정에서 상징사를 설정하였고 체계도 “현대조선어”의 영향을 받았다.

1980년대는 중국 조선어 연구의 개화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많은 문법서들이 출판되었다. 그것들로는 최윤갑 “조선어문법”(1980), 서영섭 “조선어실용문법”(1981), 동북삼성 편찬소조 “조선어문법”(1983), 연변교육출판사 “중학생조선어실용문법”(1984), 김진용 “현대조선어”(1986), 최윤갑, 허동진, 김상원 “조선어문법”(연변대학교문학부)(1986), 최윤갑 “중세조선어문법”(1987), 강은국 “현대조선어”(1987), 최명식 “조선말구두어문법”(1988), 리귀배 “조선어문법리론”(1988) 등이다. 이러한 문법서들 가운데에서 조선의 문법이론의 영향에서 벗어나려 노력한 것은 최윤갑의 “조선어문법”(1980)이다. 나머지의 문법서들은 이론과 체계에서 조선의 60년대 문법과 70년대 문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미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김수경 선생의 문법이론과 체계가 조선의 60년대의 주류를 이루었고 그것이 70년대 중기에 나온 문화어규범문법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의 80년대에 나온 조선어문법의 대다수가 조선의 60-70년대 문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김수경 선생의 문법 이론과 체계가 80년대까지 중국 조선어문법 연구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1992년 중한 수교 이후 한국의 문법이론이 중국에 널리 전파되기 시작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 발전되고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학교 조선어 교육이 위축되면서 중국에서의 조선어 연구에도 변화가 나타나 한국의 문법이론 영향이 넓어지는 추세로 나아가기 시작하였다.

3.4 김수경과 일반 언어이론 연구

연변대학 최윤갑 교수님께서서는 김수경 선생께서 중국 조선어 학자들의 일반언어학 이론 학습과 연구에도 매우 많은 도움을 주시었다고 하시었다. 논의에 앞서 이 부분의 내용은 전적으로 최윤갑 교수님의 회고에 의거한 것임을 밝혀 둔다.

해방 이후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중국 경내 조선어 학자들이 새로운 언어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은 두 갈래였다. 그 하나는 사회주의 집단의 맹주이고 언어이론의 발전을 가져온 구소련의 이론을 배우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언어학 이론을 배우는 길이었다. 그런데 일제의 통치 시기 일본어를 배운 조선민족 학자들의 러시아어나 중국어 수준이 제한되어 있어, 러시아어로 씌어진 책이나 중국어로 쓰인 책을 읽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어문법뿐만 아니라 일반

언어학 이론을 배울 수 있는 길은 조선에서 번역한 구소련의 언어이론이었다. 연변대학 초창기인 1951년에 차광일 선생이 “언어학개론” 강의를 맡았는데 김수경 선생께서 번역한 레포트 마트스끼 언어학을 교재로 하여 가르치었다고 한다.

최윤갑 교수님께서서는 김수경 선생을 일반언어학 이론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신 분으로 여기시면서 선생은 언어 이론이 매우 해박하시고 새로운 이론을 많이 장악하고 계신 분이시라고 하시었다. 이 외에도 김수경 선생의 논문 「현대 조선어 연구 서설」(조선과학원학보 1953년1호), 조선어 구조의 특성, 조선어의 우수성 등에 대한 논문과 강의가 선생님께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고 하시었다.

끝으로 최윤갑 교수님께서서는 김수경 선생은 1950년대와 1960년대 연변대학을 비롯한 중국의 많은 조선어 교원과 학생 양성 및 조선어 연구에 매우 큰 공헌을 하신 우수한 학자시라고 재삼 강조하시었다.

상술한 제반 사실들로부터 우리는 김수경 선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어학의 발전, 중국 조선어학의 발전, 나아가 우리 민족어학의 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한 걸출한 언어학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에야 김수경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게 되고, 선생의 연구업적들마저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 모임을 계기로 선생의 언어 철학, 언어이론에 대한 연구를 참답게 하고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 민족 언어의 통일과 공동의 발전에 훌륭한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

주

- 1) 최윤갑 교수께서는 1956년 겨울, 김수경 선생께서 겨울인데 외투를 안 입으시고 연변에 오시었다고 회고하시었다.

김수경 선생의 연변대학 방문 시간에 대해 일부분 기록에 차이가 있다. 필자가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과 연구”란 책에 정리해 넣은 “중국조선어문대사기”에는 1955년 11월 25일로 되어있고 현룡순의 “겨레의 넋을 지켜”(연변대학 조문학부가 걸어온 45성상)에 수록된 대사기에는 1953년 9월로 되어 있다. 이는 모두 와전임을 밝혀 둔다.

- 2) 고영일 “중국항일전쟁과 조선민족”(도서출판 백암 2002.8)
- 3) 김영환, 권승모 “주체의 조선어연구50년사”(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1996:88-90).
- 4) 동상 407페이지.
- 5) 동상 408페이지.
- 6) 동상 421페이지.
- 7) 동상 353페이지.
- 8) 동상 422페이지.
- 9) 동상 163페이지.

- 10) 동상 212페이지.
- 11) 최윤갑 주필 “중국에서의 조선어의 발전과 연구”(1992)120페이지.
- 12) 동상 121페이지.